

하늘로 흐르는 은빛 물결... 흐르는 것 어디 익새 뿐이라

익새 군락지서 가을정취 만끽

경남

흐르는 것 어이 강물뿐이라.
계곡의
굽이치는 익새꽃밭 보노라면
꽃들도 감물임을 이제 알겠다.
갈 바람 불어
석양에 반짝이는
은빛 물결의 일렁임,
익새꽃은 흘러흘러
어디를 가나,
위로위로 거슬러 산등성 올라
어디를 가나,
물의 아름다움이 환생해 꽃이라면
익새꽃은 정녕
하늘로 흐르는 강물이다.
-오세영의 시 '익새꽃'



합천군 가회면 둔내리 황매산 중턱인 900m 고지에서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전거를 메고 산을 오르고 있다.

돌이켜보면 언제나 그랬던 것 같다. 엔지 모르게 마음이 울렁거리고 고개를 둘러보면, 그곳에 이미 가을이 와있었다. 흔히들 가을은 고독의 계절이라 한다. 뜨겁게 타오르는 단풍도 잠시. 높은 하늘에 닿지 못하고 쓸쓸히 떨어지는 낙엽 때문일까. 어쩌면 내내 방심하고 있다가 불현듯 한 해의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가을이 전해주는 독특한 분위기에 취해 무작정 집을 나섰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쪽 뺨은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즐기던 중 그것을 봤다. 그것은 하얀 물결이었다. 때로는 은빛 바다처럼 잔잔히 일렁이다가도 이내 금빛 날갯짓으로 가을을 노래했다.

지난 28일 오후 찾아간 창원 주남저수지는 주말을 맞아 나들이를 나온 상추객(賞秋客)들로 북적였다. 각자 자리를 잡은 채 저마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방문객 너머로 한 눈에 전부 담을 수도 없는 저수지와 고즈넉한 독방길, 은빛 흐드러진 익새 군락이 어우러져 제법 운치있는 모양새를 이루고 있었다.

독방길에 올라 익새를 자세히 들여다 보기도 했다. 줄기 끝에 촘촘히 피어난 회갈색 익새꽃 사이로 귀뚜라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익새와 귀뚜라미가 만들어내는 가을의 하모니에 빠져들기 시작할 무렵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왔다. 코 끝을 간질이는 익새꽃이 터져나오는 재채기를 애써 참으며 고개를 돌렸다.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석양과 익새풀이 만들어내는 은빛 물결 사이로 군무를 추며 이동하는 이들을 물결철새의 모습에 마음이 울렁였다.

창원 주남저수지, 익새 군락 위로 철새 울음소리 운치

'100대 명산' 창녕 화왕산, 등산용 데크·드라마 세트장

'숨은 명산' 합천 황매산, 해발 900m 평원·오토캠핑장

◇경남을 대표하는 익새 군락지
익새는 가을의 대표 식물답게 가을이면 경남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창원 주남저수지와 창녕 화왕산, 합천 황매산의 익새 군락은 멋들어진 가을 풍경을 연출해 매년 많은 가을 나들이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깊어가는 가을, 매일 똑같은 도심의 풍경에 질렸다면 하얀 물결로 가득한 익새 군락지를 찾아 특별한 가을 경험을 만들어 보자.

▲익새와 철새의 완벽한 공합, 창원 주남저수지 = 창원시 의창구 동읍 대산면 일원에 위치한 주남저수지는 오랜 옛날부터 동읍, 대산면 농경지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공급해준던 자연 늪이며, 산남(96만㎡), 주남(403만㎡), 동판(399만㎡) 등 3개의 저수지로 이루어진 배후습지성 호수이다.

주남저수지에는 제방을 따라 총 길이가 약 3km에 달하는 익새 군락이 조성돼 있다. 제방의 양 옆으로 우거진 익새밭 사이를 거닐고 있노라면 한 폭의 그림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산책로 곳곳에 벤치와 저수지 풍광을 전망하기 위한 데크가 마련돼 있어 여유롭게 가을을 만끽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인 장소다.

매년 가을이 되면 만개하는 물억새와 함께 기러기, 재두루미, 고니, 잠수성 오

리, 물닭, 땃가리 등 다양한 철새를 탐조(探鳥)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주남저수지만의 장점이다. 늘 주위에 꽃을 피우고 한들거리는 물억새 위로 월동지를 찾아 비행하는 기러기의 울음소리는 주남저수지의 가을을 특별하게 만들어 준다. 주남저수지는 2017년 현재 탐사르협약의 등록습지 기준에 상회하는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두루미류의 중간 기착지 및 재두루미의 월동지로서 주목 받고 있기도 하다.

▲산의 절경과 어우러진 익새 군락, 창녕 화왕산 = 창녕 화왕산(해발 757.7m)은 관룡산(해발 753.6m)과 하나의 산군을 형성하고 있는 창녕 대표 명산이다. 지난 2002년 10월에는 산림청에서 선정한 '100대 명산'에 포함되기도 했다. 화왕산 정상부에는 사적 제64호인 둘레 2.7km의 창녕 화왕산성이 있으며, 산성 내부와 주변에 국내 최대 규모(약 18만6050㎡)의 익새 군락이 자리하고 있다. 매년 초 가을이 되면 화왕산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익새의 은빛 물결이 장관을 이루기 때문에 상추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창녕군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화왕산 익새 군락을 보존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달에는 등산객과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2억3000만원

의 예산을 투입해 180m에 달하는 등산객 전용 데크로드를 준공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화왕산은 수려한 경관으로 드라마 '허준', '대장금' 등의 촬영지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현재도 드라마 세트장이 남아있어 방문객에게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하늘과 맞닿은 익새밭, 합천 황매산 = 합천군 가회면과 대방면에 걸쳐있는 황매산(해발 1113m)은 합천의 진산이지만 가야산과 해인사의 명성에 가려 산행객 적이나 관광지에서도 찾기 힘들 정도로 무명의 산이었다. 덕분에 훼손되지 않은 아름다운 골짜기를 간직하고 있는 산이다. 특히 해발 900m 지점에 펼쳐진 한 폭의 그림같은 익새 평원은 철쭉과 더불어 황매산을 대표하는 볼거리다. 황매산은 해발 1000m가 넘는 높은 산이지만 해발 800m지점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을 하늘만큼 높은 곳에서 익새를 보기위해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는다.

합천군청은 올해 1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등산로를 정비하고 휴식공간을 추가 설치하는 등 시설을 재정비함으로써 황매산을 찾는 행락객들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황매산 익새평원 바로 아래에는 오토캠핑장까지 위치하고 있어 가족단위로 가을 나들이를 하기에 최적의 장소다. 오토캠핑장 이용을 원하는 방문객은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하며 황매산오토캠핑장 홈페이지(<http://camp850.com>)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 경남신문 이한일 기자

leehe@knnews.co.kr

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자란 '친절' '활력'의 꽃

▲가을의 전령사 익새

익새는 타들어가는 듯한 붉은 빛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지만 볼 수 있는 시간이 짧은 단풍과는 다르게 오랜 시간 소박한 모습으로 가을을 노래하는 가을의 대표 식물이다.

익새는 외떡잎식물 벼목 벼과의 여러해살이풀로 전국 산야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땅속에서 줄기를 옆으로 뻗으며 지라는데 개체에 따라 어른의 키를 훌쩍 넘기는 것도 있으나 보통 1~2m 정도 높이로 자란다. 여러 잎맥으로 구성된 잎은 가운뎃맥은 희고 굵다. 또 잎 가장자리가 딱딱하고 잔 톱니가 있어 손을 베이기 쉽다. 한방에서는 익새 줄기를 망경(芒莖), 뿌리를 망근(芒根)이라 하며 약재로 이용하기도 한다. 가을부터 겨울까지 채취하여 햇볕에 말렸다가 달여 마시면 되는데 열을 내리고 가래를 진정시켜주며 해독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또한 뭉친 피를 풀어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에도 좋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세를 비롯해 대하증에도 효과가 높다고 전해진다.

익새의 꽃말은 '친절', 또는 '활력'이다. 시작되는 추위에 많은 식물들이 생동감을 잃어감에 따라 자칫 활력을 잃기 쉬운 가을, 마르고 척박한 땅에도 뿌리를 내리고 활짝 피어나는 익새꽃을 보면서 기운을 북돋아보자.

약한 바람에도 흔들거리고 은빛이라면 '익새'

▲갈대야? 익새야? 구별 TIP

익새는 갈대와 함께 가을이 되면 꽃을 피워 장관을 이루는 가을의 대표 식물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비슷한 생김새와 개화시기로 인해 구분을 하지 못한다.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은빛이나 흰색을 띠면 익새다. 갈대는 고통색에 가까운 갈색을 띤다. 익새는 줄기가 갈대에 비해 가늘기 때문에 약한 바람에도 쉽게 흔들거리지만 갈대는 줄기가 뾰뚱하다. 뿐만 아니라 익새의 높이는 1~2m로 갈대(2~3m)보다 훨씬 작다. 두 식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뿌리다. 익새는 곧고 짧은 뿌리가 촘촘히 얽혀 포기나누기를 하는 것처럼 증식하기 때문에 다른 식물과 함께 자랄 수 없다. 하지만 갈대는 뿌리가 굵고 통통하다. 갈대는 뿌리줄기에 있는 마디를 따라 수염뿌리와 줄기가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뿌리 사이로 잡초들이 자라기도 한다.

신팔도유람은 한국지방신문협회 8개 회원사가 공동 취재·보도합니다

송년·신년모임 지금 예약하세요!

지난 30여년, 광주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모임을 정성껏 모셔왔습니다.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아리랑하우스에서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흙플러스 건너편

since 1981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